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배지

2024. 9. 25.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코러스 이 곳에 오셔서 이 곳에 앉으소서
이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곳에 있습니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1장 27~32절

다 같이

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말씀 나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인도자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사실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갈대아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하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창세기 10장 8~12절에 나오는 폭군 니므롯에게 하란을 고소했고 그는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화형당하였습니다.

이를 본 데라는 우상 숭배에 회의를 품고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갈대아 우르에 우상 숭배가 범람했음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어떤 곳에서 떠나야 하며 어떤 환경을 떠나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갈대아

'갈대아' (כַּשְׂדִּים, 카스딤) 라는 말은 지역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족속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점성가', '마술사'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와 관련을 갖는 '카스다인'이 '갈대아 술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니엘 4장 7절 "그 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다신적 사고를 하였고, 직업적 점성가들이 사회 상부 계층을 형성했었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땅 거민들의 생활은 우상 숭배와 떼레야 떼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다신적이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나를 우상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곳이 있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우르

'우르'(우르)란 지명은 '빛나다', '불사르다'라는 뜻을 지닌 '오르'에서 유래하여 '빛', '불'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사야 44장 16절 “그 중의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듯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이 불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후대에 조로아스터교 (Zoroastrianism), 또는 배화교 (拜火教)라는 종교로 탄생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원한 이란 계통의 종교로,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단일신교 (Henotheism)입니다. 이들은 불을 숭배하며 이 종교가 그 지역에 성행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지역의 이름임과 동시에 불의 종교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바벨’, 즉 ‘바벨론’이 ‘혼잡’, ‘혼란’이란 뜻을 지니며 하나님을 대항한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르’도 우상 숭배의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와 직업적 점술가들이 많았던 곳이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비주의나 점치는 영을 의도적으로 배격해야 하며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없애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떠나라

성경은 분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백성들로부터 노아를 분리하여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본 장에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죄악의 땅에서 분리해 내는 초기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은 마귀의 세력하에 있는 자들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자들이므로 마땅히 생활 가운데서 악을 분리해 내야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죄를 범하며 계속되는 회개의 권고를 무시하는 자는 출교하여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에서도 분리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17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사단의 영과 분리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우리의 육체를 음란과 중독,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분리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늬

다 같 이

1. “갈대아 우르”의 뜻을 원어를 참고 하여 적어 보세요.
2.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이나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 보세요.
3. 가족이나 지인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중 보 기도

----- 이상 숭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

다 같 이

1. 베이지역을 묶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가 떠나가도록
2. WCC와 종교다원주의로 기독교에 혼란을 주는 영이 떠나가도록
3. 미국의 인권을 가장한 LGBTQ와 이기주의가 떠나가도록
4. 세계의 지도자를 통해서 전쟁과 분열, 이권 다툼의 영이 떠나가도록
5. 나의 삶, 습관, 직장,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고집과 아집의 영이 떠나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생각들, 음란, 중독, 게으름과 나태함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갔으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